

弘報室 : (02)  
6050-3602~5

이 자료는 **10/24(金)자 朝刊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 인터넷 등은 **10/23(木) 11:00부터**

문의 : 유통산업정책실 이영준 실장(02-6050-1510), 강수정 대리 (02-6050-1513)

**商議 해외쇼핑족 700명 조사 ...**

**“해외직구족 1인당 직구액, 年평균 87만4천원”**

- “해외여행 중 현지 쇼핑액은 1인당 年96만5천원” ... 전체 쇼핑지출액中 해외소비 비중, 18% 달해
- 男은 의류(26%), 악세사리(20%), 女는 화장품(26%), 가방·지갑(16%) 주로 구매
- 국내쇼핑 vs 해외쇼핑 만족도 ... ‘가격·상품종류’는 해외쇼핑 勝, ‘A/S·품질·프로모션’은 국내쇼핑 勝

#1. A씨의 취미는 해외직구다. 국내에 없는 제품이나 있더라도 값비싼 제품을 직구를 통해 득템했을 때의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한다. A씨는 “배송기간이 긴 것 말고는 딱히 불편한 것도 없다”며 “인터넷에 구매 방법이나 후기가 자세히 설명돼 있고, 최근 한글을 지원하는 해외쇼핑몰도 많이 생겨 교환이나 환불도 편리해졌다”며 “배송료나 관세를 포함해도 국내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 앞으로도 계속 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 해외쇼핑족 B씨는 몇 년전만해도 명품이나 전자기기 등 고가의 제품을 해외쇼핑으로 주로 구입했지만 최근에는 기저귀나 화장품 등의 저렴한 상품도 많이 구입하고 있다. B씨는 “예전에는 배송료나 수수료 등의 비용이 많이 들어 국내와 가격차가 큰 고가의 제품을 구매하는게 이득이었지만 요즘은 배송비도 낮아지고, 수수료도 없어져 생필품, 소모품도 해외직구로 사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각종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해외직구족이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해외직구족들은 연평균 87만4천원을 직구로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지난 3년간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중 현지서 쇼핑을 해봤다는 해외쇼핑족 700명을 대상으로 ‘내국인 해외쇼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직구를 경험한 소비자(402명)의 1인당 연평균 소비금액은 87만4천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여행 중 현지 백화점, 아울렛 등의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했다는 해외 오프라인 쇼핑족들(548명)은 1인당 96만5천원을 해마다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해외여행 확대와 해외직구 열풍으로 해외쇼핑 지출액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며 “절대적인 금액뿐만 아니라 전체 쇼핑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해외쇼핑족들은 전체 쇼핑지출액의 17.6%를 해외 현지 매장이거나 온라인 직구 등을 통해 소비하고 있었다. 지난 3년간 전체 쇼핑지출액에서 해외쇼핑이 차지하는 비중변화에서도 전체 해외쇼핑족의 65.6%가 ‘해외쇼핑 비중이 늘었다고 답했고, ‘감소했다’는 응답자는 7.3%에 그쳤다. <‘거의 변동 없음’ 27.1%>

이같은 해외쇼핑은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해외쇼핑을 늘릴 것인지를 묻자 응답자의 74.9%가 ‘그렇다고 답했고, <축소할 계획 25.1%> ‘지인에게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77.0%에 달했다. <‘추천 안함’ 23.0%>

해외쇼핑시 주로 이용하는 쇼핑채널로 오프라인 채널은 ‘면세점’(46.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형쇼핑몰·아울렛’(30.1%), ‘백화점’(11.3%), ‘로드샵’(6.8%), ‘마트’(5.7%) 등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 채널은 ‘직구 사이트’(54.5%)를 가장 많이 이용한 가운데 ‘해외 종합 온라인몰’(25.6%), ‘해외브랜드 자체 온라인몰’(10.9%), ‘인터넷 카페 등 커뮤니티 사이트’(7.2%) 등의 순으로 이용했다. <‘기타’ 1.7%>

해외쇼핑시 주로 구입하는 상품은 남성은 ‘의류’(26.1%), ‘시계·선글라스 등 악세사리’(19.6%), ‘화장품’(13.9%), ‘가방·지갑’(12.1%), ‘가구·전자제품·서적’(12.1%) 순이었고, <‘건강식품’ 5.7%, ‘생활용품’ 3.6%, ‘식품’ 2.5%, ‘기타’ 2.5%, ‘유아용품’ 1.8%> 여성은 ‘화장품’(26.0%), ‘가방·지갑’(16.4%), ‘시계·선글라스 등 악세사리’(15.5%), ‘의류’(13.1%), ‘건강식품’(11.7%) 등을 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6.9%, ‘유아용품’ 3.3%, ‘가구·전자제품·서적’ 2.4%, ‘생활용품’ 2.4%, ‘기타’ 2.4%>

해외쇼핑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가격’(58.7%), ‘국내에 없는 브랜드 구매’(24.1%),

‘다양한 상품 종류’(12.4%)를 차례로 꼽았다. <‘우수한 품질’ 3.6%, ‘기타’ 1.1%>

<표1> 해외쇼핑 주요 구입 품목

	남성	여성
1위	의류(26.1%)	화장품(26.0%)
2위	악세사리(19.6%)	가방·지갑(16.4%)
3위	화장품(13.9%)	악세사리(15.5%)
4위	가방·지갑(12.1%)	의류(13.1%)
5위	가구·전자제품·식품(12.1%)	건강식품(11.7%)

<표2> 해외 및 국내 쇼핑 만족도 비교

구분	해외가 낫다	국내가 낫다	비슷하다
가격	78.3%	7.7%	14.0%
상품종류	60.0%	20.7%	19.3%
서비스	5.0%	87.1%	7.9%
프로모션	30.4%	53.9%	15.7%
품질	37.1%	15.6%	47.3%

국내쇼핑과 해외쇼핑의 만족도를 비교한 물음에는 가격과 상품종류 항목에서는 해외가 낫다는 의견이 각각 78.3%, 60.0%로 더 많았고, 프로모션·품질은 국내가 더 낫다는 의견이 53.9%, 47.3%로 해외가 낫다는 의견을 앞섰다. 특히 A/S와 관련된 서비스 항목은 국내가 낫다는 의견이 87.1%로 대다수를 이뤘다.

해외쇼핑시 겪었던 애로사항으로는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교환·환불·A/S이 어려웠다’(80.1%)을 꼽았다. 이어 ‘긴 배송기간’(50.3%), ‘비싼 배송료’(40.1%), ‘언어적인 어려움’(35.9%), ‘정품확인의 어려움’(34.0%), ‘세관등록의 번거로움’(32.7%) 등의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쇼핑 정보 부족’ 28.3%, 복수응답>

김경중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해외직구 열풍과 해외관광 활성화로 해외쇼핑이 단발성이 소비가 아닌 일반적인 구매행태의 하나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국내 유통업체들은 해외로 향하는 국내 소비자들을 잡기위해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다양한 제품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소비자들의 국내 인터넷쇼핑 이용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도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 조사 개요 >

- ☐ 조사기간 : 2014. 7. 21 ~ 2014. 8. 1
- ☐ 조사대상 : 최근 3년 이내 해외쇼핑 경험자 700명 (임의할당)
- ☐ 조사방법 : 인터넷(이메일 조사)